

2021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C형)

(가) 합리성과 법칙성을 중시한 근대의 이성주의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이루었다. 자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크게 향상하였고 산업 혁명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산업 혁명은 빈부의 격차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식민지의 착취와 노예 제도에 의한 비인간화가 심화되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무기의 발전과 대규모 전쟁은 인류를 대량 살상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합리적 이성이 인류의 번영을 약속할 것이라는 바람과는 달리 개인의 삶은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성은 우리의 훌륭한 동반자일 수는 있지만 우리 삶에 최우선적인 것이 아니라는 반성이 제기되면서, 주체적 결단과 실존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실존주의의 선구자인 키르케고르(S. Kierkegaard, 1813~1855)는 실존으로서 인간은 항상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 놓인 개인은 항상 불안을 느끼며, 선택을 꺼리고 회피함으로써 결국 모든 개인은 절망하고 만다. 키르케고르는 이런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절망하는 인간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진정한 자기, 즉 실존을 발견하게 된다. 단독자로서 개인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자기 존재, 즉 주체성을 최대의 관심사로 삼는다. 바로 이 주체성이 진리이다.

따라서 진리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주체성, 즉 실존은 육체를 가지고서 절망하는 존재이며, 바로 그러하기에 자신의 존재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뇌하는 존재이다.

(나) 이날 흥려시 소경(鴻臚寺少卿) 조광련(趙光連)과 의자를 나란히 하고서 요술을 구경하였다. 내가 조광련에게 말하였다.

“눈이 능히 시비를 판단치 못하고 진위를 살피지 못할진대, 비록 눈이 없다고 해도 괜찮으리이다. 그러나 항상 요술하는 자에게 속게 되는 것은 이 눈이 일찍이 망령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려.”

조광련이 말했다.

“비록 요술을 잘하는 자가 있다 해도 맹인은 속이기가 어려울 터이니, 눈이란 과연 항상 믿을 만한 것일까요?”

내가 말했다.

“우리나라에 서화담(徐花潭) 선생이란 분이 있었지요.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만났더랍니다. ‘너는 왜 우느냐?’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세 살에 눈이 멀어 지금에 사십 년이올시다. 전일에 길을 갈 때는 발에다 보는 것을 맡기고, 물건을 잡을 때는 손에다 보는 것을 맡기고, 소리를 듣고서 누구인지를 분간할 때는 귀에다 보는 것을 맡기고, 냄새를 맡고서 무슨 물건인가를 살필 때는 코에다 보는 것을 맡겼습지요.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으되, 저에게는 손과 발과 코와 귀가 눈 아님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찌 다만 손과 발, 코와 귀뿐이겠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낮에 피곤함

으로 미루어 보았고, 물건의 모습과 빛깔은 밤에 꿈으로 보았지요. 장애가 될 것도 없고 의심과 혼란도 없었지요.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두 눈이 갑자기 밝아지고 백태가 끼었던 눈이 저절로 열리고 보니, 천지는 드넓고 산천은 뒤섞이어 만물이 눈을 가리고 온갖 의심이 마음을 막아서 손과 발, 코와 귀가 뒤죽박죽 착각을 일으켜 온통 예전의 일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까마득히 잃어버려 스스로 돌아갈 길이 없는지라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화담 선생이 말했습니다. ‘네가 네 지팡이에게 물어본다면 지팡이가 응당 절로 알지 않겠느냐.’ 그가 말하기를, ‘제 눈이 이미 밝아졌으니 지팡이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하니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아라. 바로 거기에 네 집이 있으리라.’ 이로써 논한다면, 눈이란 그 밝은 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늘 요술을 보니, 요술쟁이가 능히 속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경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은 것일 뿐이래요.”

(다) 사람은 오감(五感),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이 다섯 가지의 감각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으로, 사람이 습득하는 정보의 80퍼센트는 오로지 시각에 의존한 정보들이다.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1999년 신경 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퍼셉션』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이 있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와 대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그들은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러 명을 두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농구공을 주고받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이렇게 주문하였다.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만 세어 주세요.”라고.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히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은 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하는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 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 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의 등장 사실을 알려 주고 동영상을 다시 보여 주자, 분명 먼젓번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대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칭했다.

1. 제시문 (나)에서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의 의미를 제시문 (다)를 근거로 설명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가)의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울고 있는 자’가 처한 상황과 서화담의 조언을 설명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